유통/이커머스

Sector Issue Brief 2025. 2. 19

테무에 입점하세요

Check Point

- 테무, 한국 셀러 모집 시작
- 미국 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른 한국 이커머스
- 낙수효과는 물류업체에게로

| Analyst 오린아 | lina.oh@ls-sec.co.kr

테무, 한국 셀러 모집 시작

C커머스 업체 테무가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 직접 진출 예정. 국내에서 오픈마켓을 열고 한국인 셀러 모집에 나선 상황. 기존 테무는 중국 제품을 직구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에 더해 한국 상품을 직접 유통하겠다고 밝힘. 실제로 테무는 지난 해 말부터 인사, 총무, 마케팅, 물류 등의 채용을 진행 중이었고, 전일(2월 18일)한국인 셀러를 직접 모집하고 직진출하겠다 밝힌 것. 올해 1)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 런칭, 2)알리바바+지마켓 JV 와 더불어 테무 진출까지 불거지면서 이커머스 내 경쟁 심화가 예상됨. 테무의 2024년 MAU는 쿠팡,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어 3위를 기록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세를 확장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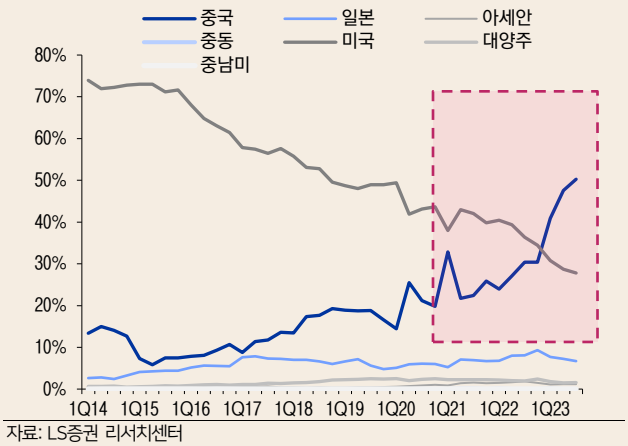
미국 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른 한국 이커머스

테무는 기존 본사가 가격 책정과 물류를 전담하며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직매입 후 판매하는 구조를 유지해왔음. 다만 앞으로는 판매자가 직접 상품을 미국으로 배송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계획.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C커머스 업체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 그동안 미국에서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소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이제 이 기준 면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모든 중국산 제품에 추가 10%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 이에 테무의 새로운 정책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관세 증가로 인한 원가 상승을 판매자가 부담하거나,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라는 의도로 풀이됨.

낙수는 물류에게로

테무의 사세 확장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결국 물류업체일 것. 참고로 테무는 김포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와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물류업체와 계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그림1 전통적으로 높았던 미국 해외 직구 비중 → 중국이 빠르게 상승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vs. 쿠팡 와우 멤버십

	네이버	쿠팡
멤버십 가격	4,900 원	7,890 원
형태	3P	1P
물류	물류업체와 제휴	자체 물류
배송	도착보장	로켓, 로켓프레시, 당일배송
멤버십 혜택	네이버쇼핑 적립, 넷플릭스, 요기요, 롯데시네마, 쏘카, GS25, CU, 신라면세점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무료반품, 무료직구

자료: 각 사,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오린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 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 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15% 이하 기대	92.4% 7.6%	2018 년 10 월 25 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15%로 변경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4. 01. 01 ~ 2024. 12.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 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